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7호)

매월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5.05

미션
MISSION

사람을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즐거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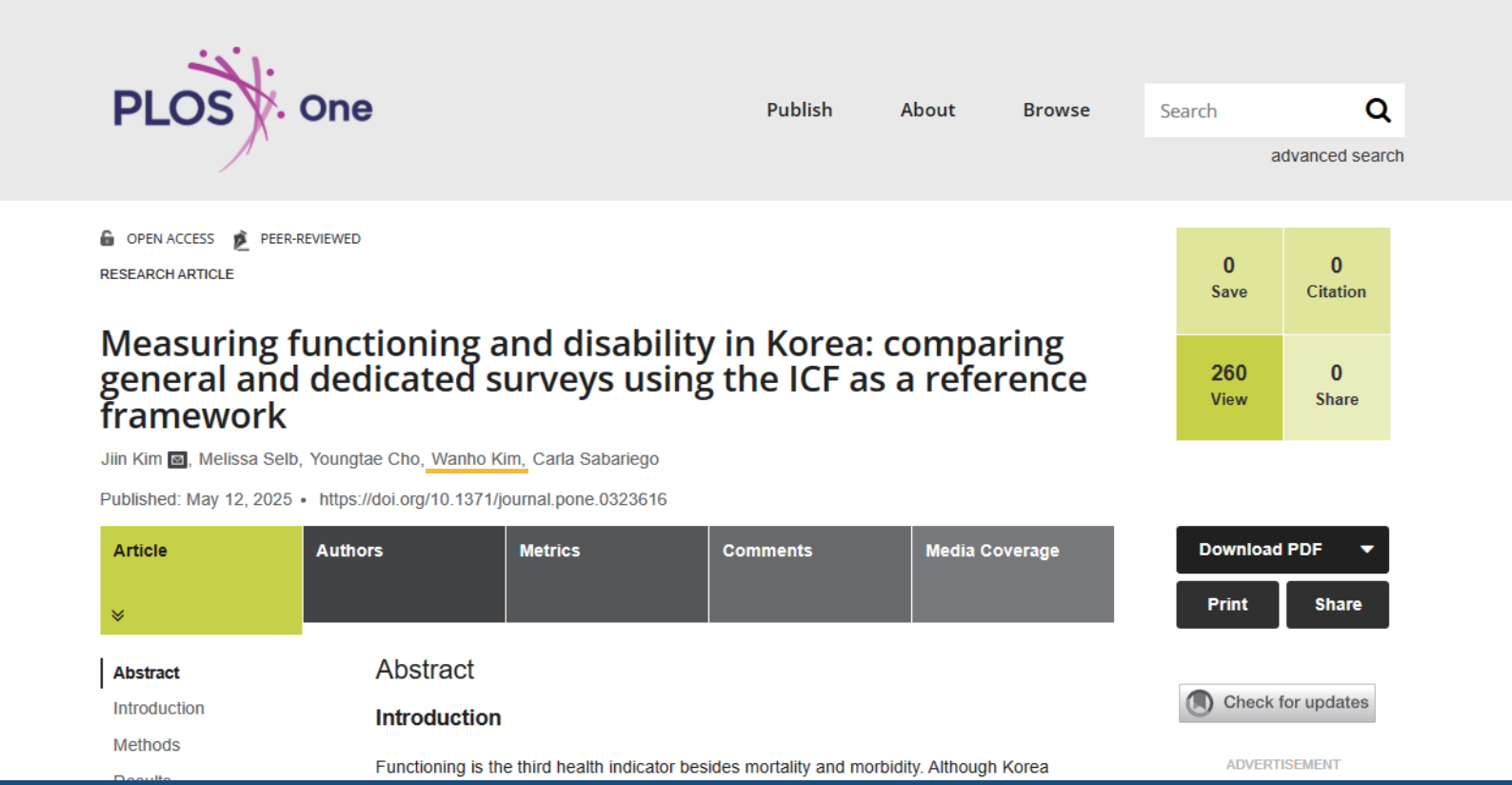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재활의료 김완호 원장님,
세계적 학술지 'PLOS ONE'에 공동 연구 논문 게재 (05.12)

재활의료김완호 원장님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습니다.

'PLOS ONE'은 2006년부터 퍼블릭 라이브러리 오브 사이언스(PLOS)에서 발간되고 있는 세계적인 과학 및 의학 분야 저널로, 전 세계적으로 학문적 신뢰를 인정받는 권위 있는 학술지입니다.

이번 논문은 국제기능분류(ICF) 기준을 활용하여 한국 내 주요 건강·장애 관련 조사들이 기능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조사 데이터의 국제 비교 가능성과 건강지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재활과 장기요양 정책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연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원 갑상선센터

부산 MBC 메디컬다큐 365 방영 (05.26)



부산 MBC 메디컬다큐365에서 5월 26일, 우리병원 갑상선센터의 이야기가 “갑상선암, 수술 없이 이겨내기”라는 제목으로 방영되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국내 최초로 갑상선암 고주파절제술 1,000례를 달성하고, 저위험 갑상선유두암 고주파절제술의 세계 최장기 연구 논문을 발표한 우리병원의 치료 성과와 의료진의 노력이 집중 조명되었습니다.

고주파절제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하며 국내 갑상선암 치료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본원 갑상선센터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 다시 한 번 대중에 소개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2025년 신입직원 3개월 프로그램 실시

신입직원교육은 신입직원이 해나행의 조직문화와 비전을 이해하고,
필요한 업무 역량을 갖추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첫 걸음입니다.
신입직원교육은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총 세 번의 만남으로 진행됩니다.

- 첫 번째 만남(1개월차), 병원소개 및 필수교육, 비전 수립 프로그램
- 두 번째 만남(2개월차), 입사동기와 함께 하는 소통의 장, 비전 돌아보기 프로그램
- 세 번째 만남(3개월차), 수습기간 과정의 노고 치하 및 축하, 앞으로의 성장을 도모하는 프로그램

3기 신입직원 깜짝만남 (2개월)



▷일시:
2025.05.09(금) 13:00~13:30

▷참여인원: 9명

▷참 석 자:
간호팀 - 신보민, 홍소의
재활치료2팀 - 소예찬
갑상선유방팀 - 양정인
내과내시경팀 - 신지원
심사팀 - 박자영

▷주요내용:
성장과 비전 관련 동영상시청,
자기성장 PT 작성방법 안내

2기 신입직원 수습수료식 (3개월)



▷일시:
2025.05.23(금) 16:40~17:30

▷참여인원: 17명 중 12명 참석

▷참 석 자:
간호팀 - 박소연, 이주희, 양다온
재활치료1팀 - 김대인, 문원우
재활치료2팀 - 권재원, 박지예
갑상선유방팀 - 김서안
건강증진팀 - 김수민
내과내시경팀 - 강지원
브랜딩실 - 권용협
HR팀 - 한성자

▷주요내용: 시상 및 수료,
소감나누기, 설문조사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05.09)

6층 낮병동 일상재활센터에서는 매달 '출석왕'과 '자립왕'을 선정하여, 참여자분들의 꾸준한 노력과 자립을 향한 멋진 발걸음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한○수, 김○식 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태, 김○창 님이 수상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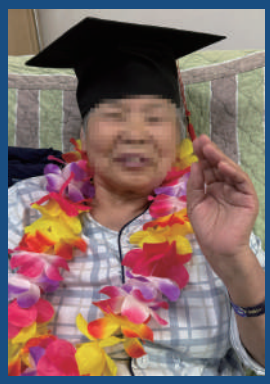
이번에는 시상을 받게된 담당 참여자를 응원하러 와주신 김완호 원장님과 정경란 파트장님도 함께 자리해주셔서 더욱 풍성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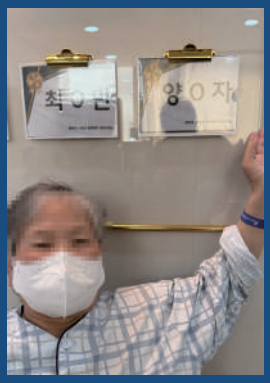
낮병동/일상재활센터에서 매월 다양한 자립활동을 통해 열심히 재활에 힘쓰고 있는 참여자분들에게 축하와 박수 드리고 있으니, 다음 시상식 때도 언제나 누구든 와주시면 더 풍성한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24대 꿀꺽왕 시상식 (05.29)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합니다. 또한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24대 꿀꺽왕은 입원 후 5○○에 입원하고 계신 양○자 참여자분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시상은 특별히 김완호 원장님께서 시상식을 함께해주셨습니다. 참여자분께서 저희가 방문하였을 때 보다 원장님이 오셨을 때 더욱더 환한 미소로 반겨주셨습니다.

참여자분께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특별히 가리는 것 없이 다 좋아하신다 합니다.

앞으로 먹는 즐거움을 알아갈 참여자분을 만나신다면, 많은 응원과 축하부탁드립니다.

스포츠체험 (05.07)

사격체험을 하기 위해 영도사격장을 다녀왔습니다.

사격장에서 지켜야할 안전수칙과 총기 사용법에 대해 친철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셔서 참여자분들이 편안하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 두 분은 소총으로 체험 하였고 표적지 대부분이 중심에 가깝게 명중하여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체험이 끝난 후에는 사격에 흥미를 느끼며 퇴원 후에도 이어가고 싶다는 기대감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밖으로 한걸음씩 (05.02)

유난히 많았던 인파와 차량의 이동 속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은 쉽지 않은 경험이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병원 외부의 일상적인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장애에 대한 수용과 적응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탁 트인 바닷가에서 잠시나마 재활과 관련된 여러 어려움에서 벗어나 여유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러한 외부 활동이 심리적 회복과 사회 적응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슬기로운재활생활 (05.14)

한층 특별해진 슬기로운재활생활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 '뇌질환&회복기재활의 이해'를 주제로 김완호 원장님의 깊이 있는 강의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뇌질환의 다양한 종류와 그에 따른 후유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질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시작으로, 강직, 욕창, 부종 등 주요 후유증에 대한 예방 및 관리 방안에 대해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통한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과 재활치료 이후 충분한 휴식을 통한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참여자들이 재활치료에 더욱 깊이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활치료에 대한 이해는 물론, 스스로의 회복 여정에 대한 의지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슬기로운재활생활은 참여자와 가족분들에게 유익한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찬 프로그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웃음치료 프로그램 (05.03)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국문화예술복지부 러브뮤직에서 웃음치료 시간을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참여자, 보호자, 간병사 선생님들이 함께 어울려 노래하고 웃음으로써 마음속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 소소하지만 특별한 토요일을 선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6월 7일(토) 오후 3시 30분, 8병동 휴게실에서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5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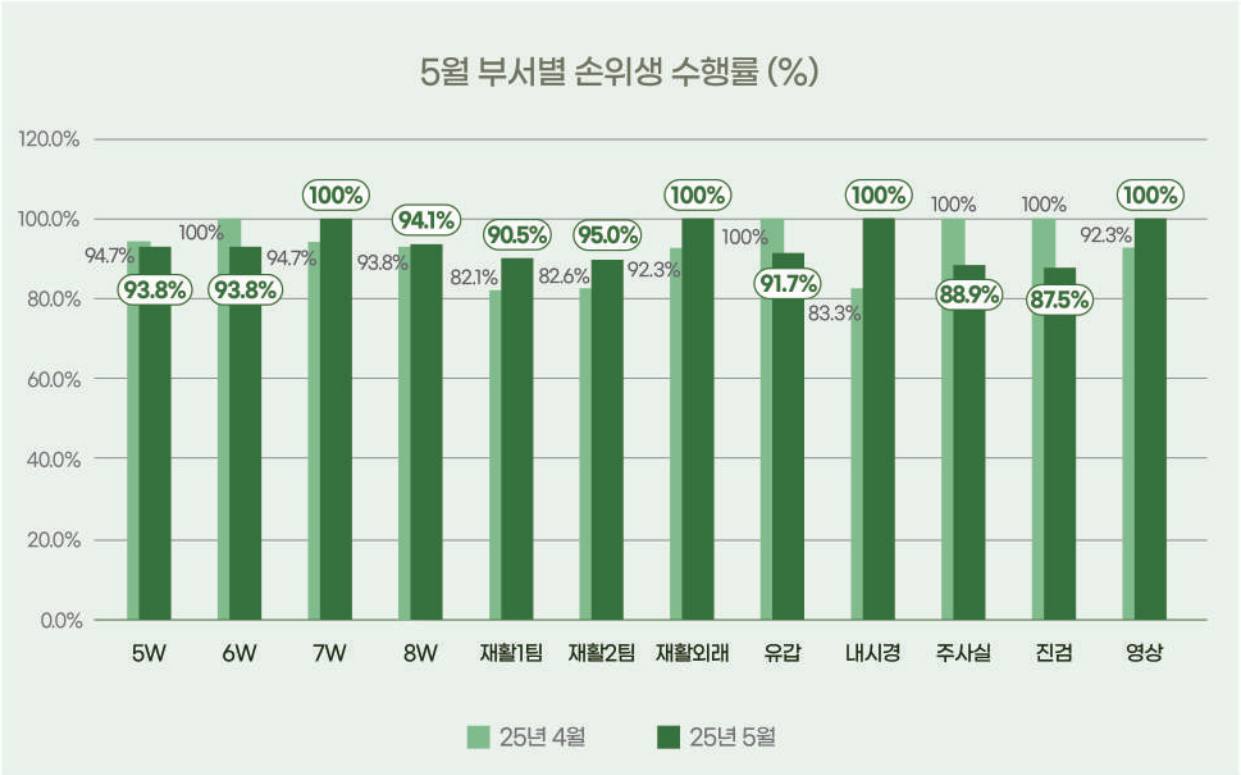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5년 05월 01일 ~ 2025년 05월 31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 (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5년 4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0	151	94.4%	**+3.1%**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사회복귀지원이야기 열 여섯 번째 이야기

사회사업팀에서 준비하는 우리병원 사례입니다.

16

자립과 돌봄 사이, 함께 나누는 고민

이OO님은 어릴 적 소아마비를 앓고 있던 분으로 뇌경색 발병 이후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본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OO님은 밝고 긍정적이었으며 신체적 제약에도 스스로에게 한계를 두지 않고 생활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불편하고 잘못된 자세로 생활해 왔기에 올바른 자세로 일상생활동작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 뇌경색으로 인한 기능 저하가 동반되었기에 두 가지 장애를 고려한 재활치료 계획과 사회복귀계획이 필요했습니다.

딸은 독거로 인한 안전 문제를 우려하여 퇴원 직후 단기간이라도 부산에서 함께 생활하길 희망하였고 이OO님은 딸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염려하여 청도 자택 복귀를 강력하게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퇴원계획과 관련하여 돌봄 문제, 주거환경개선 문제 등을 참여자,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의견을 조율해 나갔습니다. 또 이OO님은 자립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과 걱정이 자리잡고 있었기에 다양한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엄마야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까? 이런 제도도 있습니까? 다 신청해주이소'

먼저 슬기로운재활생활 교육을 통해 질환에 대한 이해와 준비된 퇴원의 필요성을 인식해 나가고, 집단상담 마음톡톡 프로그램을 통해 뇌병변에 따른 심리정서적 변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이야기 나눔으로써 감정수용과 자기 이해를 높여갔습니다. 그리고 웃음치료와 이벤트 프로그램,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가 함께하는 '어울림 나들이'에도 참여하여 마음을 회복하고 다져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퇴원계획과 돌봄 문제에 대해서는 입원부터 퇴원 직전까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급여 제도를 통해 가족 돌봄이 가능한 점을 안내하고 딸과 함께 생활 시 딸의 돌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을 설명드림으로써 참여자의 무거웠던 마음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를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본원에서 시행하는 방문재활치료와 같은 서비스를 청도 자택 인근에서 이용하실 수 없었기에 이로 인한 고민도 더해졌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이OO님께서는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 자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청도 자택으로 복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최종 목표인 청도 자택 복귀를 위한 주거환경평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청도 자택은 1층 단독 주택으로 실내 문턱이 높고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낙상위험이 높은 환경이었습니다. 이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여 자택 내 안전바 설치, 전동침대 및 목욕의자 등 필요한 복지 용구를 구비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현재 이OO님은 딸의 자택에서 생활하시며 방문 재활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치료 종료 후에는 청도 자택으로 복귀하여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의뢰하여 보건소 방문재활,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연계하여 참여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OO님의 행복한 일상생활을 응원합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table>
<tr><td rowspan="6">참여자 사항</td><td rowspan="2">대상</td><td>성별</td><td>나이</td><td>보호유형</td><td>대상질환</td><td>발병일</td><td>입원기간</td></tr>
<tr><td>여성</td><td>60대</td><td>일반</td><td>뇌경색</td><td>2024.06</td><td>2024.06 ~ 2025.02</td></tr>
<tr><td>가족사항</td><td colspan="6">■ 가구형태 : 독거 가구
■ 주보호자 : 딸
■ 가족 지지체계 높음</td></tr>
<tr><td>심리·사회적 사항</td><td colspan="6">■ 자택 복귀를 희망하나 독립적인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td></tr>
<tr><td>경제적 사항</td><td colspan="6">■ 경제적 어려움 없음</td></tr>
<tr><td>주거사항</td><td colspan="6">■ 주거형태 : 1층 단층 주택
■ 주거환경 : 문턱 있음. 안전바 설치 필요</td></tr>
<tr><td>문제사항 및 욕구</td><td colspan="6">■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및 재활치료 관련 교육 참여 욕구
■ 딸과 함께 생활 시 돌봄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미안함
■ 퇴원 후 재활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병행 희망하나 거주지 인근 자원 없음</td></tr>
<tr><td rowspan="3">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td><td>사회복귀계획</td><td colspan="6">■ 퇴원경로 : 딸과 함께 부산에서 생활 후 청도 자택 복귀
■ 청도 자택 주거환경 평가 진행
■ 안전바 설치 및 복지용구 준비
■ 본원 외래재활 치료 및 방문 재활치료 고려</td></tr>
<tr><td>참여 프로그램</td><td colspan="6">■ 상담 : 참여자 및 보호자 상담
■ 교육 : 슬기로운재활생활 PG
■ 심리정서지원 : 집단상담 마음톡톡 PG, 이벤트 PG, 웃음치료 PG, 어울림 나들이</td></tr>
<tr><td>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td><td colspan="6">■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요양급여 안내
■ 경상북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연계(보건소 방문재활, 방문간호 등)</td></tr>
</table>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신혜선 후원자,
척수장애인 재활을 위한
'척수센터' 건립에 뜻깊은 후원 (04.30)

지난 4월 30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는 특별한 감사의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척수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위한 '척수센터' 건립을 위해 기꺼이 후원금을 전달해주신
신혜선 후원자님께 감사를 전하는 자리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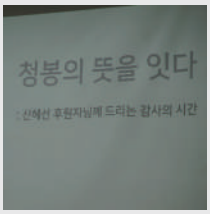
이번 행사는 후원자님의 뜻과 걸음을 기리는 의미에서 '여는 인사,
기억의 헌정, 만남의 여정, 감사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차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병원장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시간은, 그동안 이어온
따뜻한 나눔의 발자취를 되새기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만남의 여정'에서는 신혜선 후원자님과 함께한 시간들 속에서 피어난
진심 어린 나눔의 이야기가 소개되며, 현장의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이어진 '감사의 마음' 순서에서는 감사패와
꽃다발, 작은 선물이 전달되었고, 참석자 모두가 따뜻한 박수로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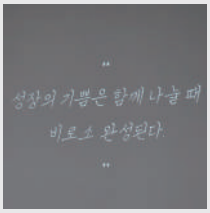
신혜선 후원자님의 이번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척수장애인이
보다 온전한 삶을 꿈꾸고,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척수센터'는 향후 전문 재활운동, 전환훔,
심리사회적 지원을 아우르는 복합 회복공간으로 조성되어, 당사자
중심의 재활을 실현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예정입니다.

나눔은 기적을 만듭니다.

신혜선 후원자님의 깊은 뜻을 오래도록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그 걸음에 함께하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버이날, 마음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 (05.08)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재활간호팀, 사회사업팀이 함께 마음을 모아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활치료를 위해 입원하신 65세 이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여 생활동(병동)으로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음의 향기 가득 담은 카네이션을 전해드렸습니다. 좀처럼 웃음을 보여주지 않으셨던 분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고, ‘아버님 웃음을 볼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더 멋진 함박웃음을 지어주셨습니다.



또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며 손을 꼭 잡아주신 분도 계셨고, ‘내 자식 같고, 손녀 같아’라고 하시며 가족처럼 아껴주시는 마음에 더 큰 감사함을 선물 받은 하루였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영상의학과 박지영 과장님 환송기념식 (04.30)

함께하며 보여주신 정확한 검사와 판독, 우리병원의 정확한 진단과 진료에 기여해주신 박지영 과장님의 공로에
깊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담아 환송기념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재활의학과 공다혜 과장님 베이비 샤워 (05.20)

태어날 아기에게 축복과 선물이 샤워(소나기)처럼 쏟아져 오라는 의미를 담은 베이비 샤워,
재활의학과 김완호 원장님을 포함 재활간호팀에서 만삭의 공다혜 과장님과 함께
베이비 샤워를 조촐하게 진행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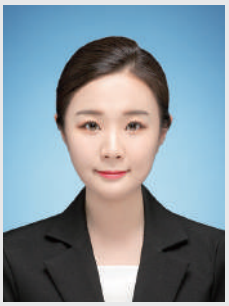






우리는 가족입니다.
05월의 신규입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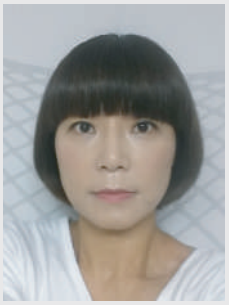

영상의학과 서영화 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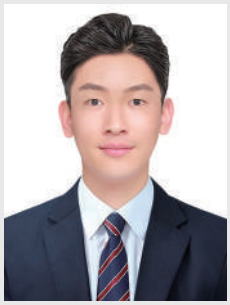

재활간호팀(6W) 박다희 간호사


재활간호팀(8W) 황연아 간호사


재활간호팀(6W) 권선녀 팀원


갑상선유방센터 김민주 간호사


재활간호팀(7W) 김경훈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이년재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이지원 간호사


재활치료1팀 박민우 물리치료사


재활간호팀(5W) 도희영 간호사


재활간호팀(7W) 이재하 간호사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이미용 서비스 (05.20 / 05.23)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중인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총 76명의 참여자께서 서비스를 받으셨으며,
4명의 전문 자원봉사자께서 재능 나눔을 실천해 주신 덕분에 많은 분들에게 큰 활력소가 되고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따뜻한 손길을 전해 주시는 봉사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vol. 1

해나행 추천도서

해나행 추천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vol.1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요즘 같은 시대에 책을 읽으시네요”
“네~ 저는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에 다니거든요”

그동안 해나행에서는 신입직원이 수습기간을 잘 마쳤을 때나, 승진으로 한단계 성장했을 때 읽으면 도움이 되는 책들을 선물해왔습니다.

팀장님과 파트장님들과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도 추천하고 나눠서 읽기도 했지요. 연말이면, 때로는, 좋은 책들을 전직원들과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독다독에서 매달 추천해주시는 책들을 보면서, 이번달에는 한권은 꼭 읽어야지 다짐도 하셨지요?

사회사업팀에서 운영하는 [행복미니도서관]에 빼곡이 꽂힌 책들을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별세계로 들어선 기분이죠.

우리는 늘 책과 함께 하는 해운대_나눔과행복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어요“
”업무를 하면서 한계에 부딪혔어요“
”팀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우리팀을 잘 이끌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좋은 동료나 리더를 만나면 엉켜있던 머리속이 정리되고, 에너지도 샘솟습니다. 때로는 좋은 책이 좋은 사람만큼 도움이 된답니다. 오랜 고민에 명쾌한 해결방안을 주고, 갇혀있던 생각의 물길을 터주기도 합니다.

늘 걷던 출근길을 달리 보이게 해주고, 매일 만나는 동료들을 다르게 대할 수 있는 좋은 문장을 만날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해나행 추천도서]**를 정했습니다.

그동안 해나행과 함께 해왔던 책들과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책들을 잘 추려서 소개해드릴께요~

해나행 추천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vol.1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을 소개합니다.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vol. 1

해나행 추천도서

해나행 추천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vol.1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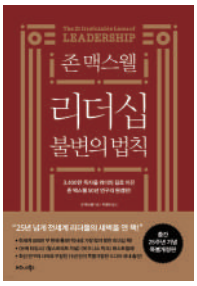


“마음먹으면 하루만에 읽는다”

하워드의 선물 메릴 미도우 · 에릭 시노웨이 | 2013

하버드 대학의 수천 명의 학생들과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하워드로부터 지혜와 통찰을 얻고 그를 본보기로 삼아왔다. 이제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 하버드 경영대학원 명예학장, 존 맥아더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리더십 불변의 법칙 존맥스웰 | 2023

‘리더십’이라는 복잡한 개념을 명쾌하게 정의하고 뛰어난 리더가 되기 위한 핵심 지침을 간결하게 제시한다. 이에 더해 리더십의 원리에서부터 인생의 바탕이 되는 가치, 리더십의 효율적인 실천 방법 등 ‘리더십의 모든 것’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다룬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계의 법칙’, ‘영향력의 법칙’부터 마지막 ‘유산의 법칙’까지 21가지 법칙으로 체계화하여 누구나 쉽게 리더십을 체험하고 익힐 수 있게 도와준다. - 출판사 서평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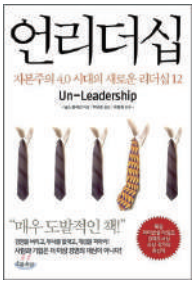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거인의 리더십 신수정 | 2023

리더로서 고민이 있을 때 부사장님의 인스파이어 강의를 듣고 나다운 리더십을 찾을 수 있는 기준과 힘을 얻었습니다. 리더로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는 귀한 책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은경(Tech기업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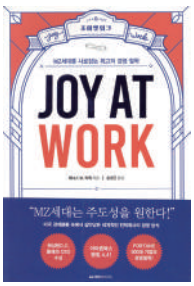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언리더십 닐스 플레깅 | 2011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을 가차 없이 분해하고 새로운 21세기형 대안을 제시하는 이 책은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찾아 헤매는 경영자들에게 최신 지도가 되어 줄 것이다.

- 김종립(HS애드대표이사)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Joy at Work 데니스 W. 바케 | 2021

모든 리더들, 특히 열정적인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매우 도전적인 내용의 책이다. 바케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며 경영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놓았다.

- 린샤프페인(하버드비즈니스스쿨경영학교수)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vol. 1

해나행 추천도서

해나행 추천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vol.1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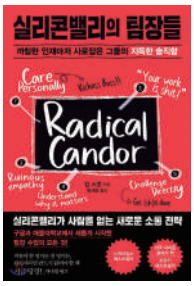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더미팅 홍국주(James), 최익성 | 2020

회의를 망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회의에 대한 이 책은 조직 차원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것이다.

- 출판사 서평 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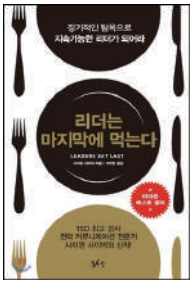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읽는다"

실리콘밸리의 팀장들 킴 스콧 | 2019

이 책에서 스콧은 광범위한 경험을 바탕으로 팀을 이끄는 원칙에 대해 분명하고 솔직하게 조언을 준다.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법, 현명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법, 조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 등. 직원이 한 명이든 천 명이든, 관리자라면 반드시 이 책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 다니엘 핑크 (《파는 것이 인간이다》, 《드라이브》 저자)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리더는 마지막에 먹는다 사이먼 시넥 | 2014

풍부한 실사례를 통해 리더십의 가능성을 쉽고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사이먼이 제시하는 리더는 '책임지는 리더'다. 그러한 리더는 우리가 기꺼이, 조직을 위해 헌신하게 만든다.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포브스 책소개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OKR 파워 가인지 컨설팅 연구소 | 2020

급변하고 있는 시대, 더 이상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 OKR로 애자일 하게 변화에 대응하고 발 맞춰가야 한다. 이제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적용한 OKR 성공 스토리들에서 한국 기업들의 OKR 성공 스토리들이 점점 많아지길 바란다. 『OKR 파워』가 그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며 추천한다.

- 이인석 (이랜드 서비스 대표)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읽는다"

일,시간,성과: 일 잘하는 시간관리 습관 삼성경제연구소 시간관리연구소 | 2020

이 책은 누구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몰라서는 결코 '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없는, 직장에서의 시간관리 해법을 찾고자 하는 바람을 담고 있다.

- 출판사 서평 中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vol. 1

해나행 추천도서

해나행 추천도서 ”이럴 때, 이런 책을“

vol.1 모두가 함께 읽으면 좋을 책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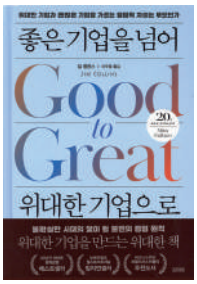


“쉽게 술술 읽힌다”

일하기 전, 일하는 중, 일하고 난 후 류랑도 | 2023

‘열심히’만 하는 사람들은 늘 ‘일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계획도 없고, 보고도 없습니다. 그러나 올해 연말에는 당신도 두둑한 인센티브와 함께 회사 내의 소문난 일잘러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 출판사 서평 中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읽는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 짐 콜린스 | 2001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위대한 기업이 될 수 있는 비결에 대한 통념, 즉, “천재 카리스마 리더가 분명한 비전과 전략을 세워서 높은 성취를 이룬다”를 완전히 깼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년이 흘렀다. 최근 개방과 수평의 시대가 열리면서 리더의 겸손과 공감 능력이 기업 성공에 있어 더더욱 필수적인 요소로 제시되고 있다. 짐 콜린스가 말한 대로 “이 책은 좋은 기업에서 위대한 기업으로의 원리에 관한 시간을 초월하는 책”임을 증명했다.

- 신수정(KT부사장)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김원영 | 2018

우리는 타인이 인생에서 맞닥뜨린 장애물들을 나 자신은 피할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까? 인생의 어떤 길목에서 우리 역시 한 번은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이미 걸려 넘어졌는데 그렇지 않은 척 애써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실격당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말이다. 이 책은 실격 당했다는 낙인을 두려워하는 모두를 위한 책이다. 김원영의 변론을 통해 우리는 넘어진 삶을 일으키는 법, 스스로를 비난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는 법을 배운다. - 김현경(인류학자,『사람,장소,환대』저자)



“집중해도 일주일은 필요하다”

원칙중심의 리더십 스티븐 코비 | 2001

코비 박사의 지혜와 정열,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는 이 책은 진정한 리더를 꿈꾸는 이들의 지혜의 원천이 되어 줄 것이다.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사회와 기업, 개인에게 소중한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이다.

- 출판사 서평 中



“마음먹으면 하루 만에 읽는다”

대화의 기술 한석준 | 2024

‘기술’이라는 말은 굉장히 목적지향적이다. 흔히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한 차가운 능력을 의미하는 맥락에서 사용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책이 그렇다. 《한석준의 대화의 기술》은 대화의 본질이 공감이자 상생이며, 이해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에 있음을 깨우친 한석준이 ‘기술’이라는 말을 통해 알려주는 친절한 대화 안내서다. 과거에도 이런 책을 한 번 본적이 있다. 바로 심리학의 거장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다. - 김경일 (인지심리학자)

주요정책 정기배송

(by 조직문화성장실)

알아두면 좋은 정부정책을

알 기 쉽 게

새롭게 바뀌는 해나행 제도와 소식을

상 세 하 게

2025년 제4탄

다자녀 교육포인트

아이둘 30만원, 아이 셋 50만원 동백전으로 신청하세요~

부산시 다자녀교육포인트 지금 신청하세요~

2자녀 가정에는 연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는 연 50만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학습 교재 구입, 예체능 교육시설, 독서실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격 조건

1. 신청일 기준 부산 거주
2. 전입일 3개월 이상
3. 자녀 중 1명 이상이 2007~2018년 생에 해당
4. 2자녀 이상
5. 최소 1인 보호자와 자녀 1명 동일 세대 거주

▣ 신청기간

2025.5.22.(목).~2525.12.12.(금) 18시

▣ 신청방법

동백전 App

▣ 지급방식

- 즉시지급 : 자녀와 동일 세대인 부모 신청 시
- 심사후지급 : 즉시 지급 대상 외

▣ 사용처

학습교재(도서) 및 독서실, 예체능 교육시설 등

‘손끝으로 맛을 수놓다’ 나행밥상 열 여덟 번째 이야기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18

‘나행밥상’은 매월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열무비빔밥

지금이 자칫 잘못하면 입맛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라며
입맛을 돋울만한 맛난 음식을 한상 거하게 차려달라는
참여자분들의 요청에 따라 살짝 이른 감은 있지만,

구수하고 쌉싸름한 맛으로, 입맛이 달아나기 전 단단히
붙들어 맬 열무비빔밥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린 열무로 김치를 담아 맛깔나게 익히고,
건강에 좋은 보리쌀로 고슬고슬하게 보리밥 지은 다음,
슴슴하게 무친 각종 야채와 버무린 뒤,
우렁을 듬뿍 넣은 강된장으로 쓱쓱 비비면,
그야말로 맛과 영양을 모두 충족한 열무비빔밥이 완성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이 맛을 싫어할 순 없겠죠?

누구나 좋아할 그 맛으로,
모두가 즐거움으로 흥얼거릴 수 있도록,
영양팀은 밥상 앞으로 행복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코앞으로 다가 왔습니다.
더운 여름 지치지 않도록, 영양팀은 영양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쭉~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양팀은 한 끼의 식사에도 설렘을 느끼고 추억을 떠
올릴 수 있도록 손끝으로 추억의 그 날을, 그 맛을 식탁 위에
펼쳐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의 공유 글 (프란치스코 교황의 마지막 편지)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5.01)

"이 세상에 내것은 하나도 없다"

♡프란치스코 (1936~2025)

"이 세상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는 오늘,
이 삶을 지나가는 사람으로서
작은 고백 하나 남기고자 합니다.

매일 세수하고, 단장하고,
거울 앞에 서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나'라고 믿었지만,
돌아보니 그것은 잠시 머무는 옷에 불과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을 위해 시간과 돈,
애정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아름다워지기를,
늙지 않기를,
병들지 않기를,
그리고... 죽지 않기를 바라며 말이죠.

하지만 결국,
몸은 내 바람과 상관없이
살이 찌고, 병들고, 늙고,
기억도 스르르 빠져나가며
조용히 나에게서 멀어집니다.

이 세상에,
진정으로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도,
자식도, 친구도,
심지어 이 몸뚱이조차
잠시 머물렀다 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구름처럼 머물다 스치는 인연입니다.
미운 인연도, 고운 인연도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피할 수 없다면 품어주십시오.

누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나서십시오.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요.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오늘, 지금 하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온 마음을 쏟아주십시오.

울면 해결될까요?
짜증내면 나아질까요?
싸우면, 이길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저마다의 순리로 흐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흐름 안에서
조금의 여백을 내어주는 일입니다.

조금의 양보,
조금의 배려,
조금의 덜 가짐이
누군가에겐 따뜻한 숨구멍이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세상을 다시 품게 하는 온기가 됩니다.

이제 나는 떠날 준비를 하며,
이 말 한마디를 남기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내 삶에 스쳐간 모든 사람들,
모든 인연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물겹도록 고맙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이 삶은 감사함으로 가득 찬
기적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삶에도
그런 조용한 기적이 머물기를 바라며
이 편지를 마칩니다.



영양팀장의 말,말,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05.08)

참 어렵죠?



오늘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존재이며,
어른인 어버이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날입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김동하 팀장님의 '브런치'에서의 '어른이 되는법'에 이어
생각해보면 좋을, 제가 애정하는 백수린 작가님의
산문집에 실린 글귀를 소개해 드립니다.

>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저마다 누려야 할 몫의
> 행복과 불행, 성공과 좌절, 자유와 책임이 있음을
> 깨닫고 존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 「다정한 매일매일」 48~49p

참 어렵죠?

어렵지만,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해
보는 것부터가 진정한 어른으로 가는 첫걸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처럼 고민을 시작으로 저마다의 노력으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누군가의 어버이가 될 모든 분들을 위한
격려를 담은 음식을 소담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이 음식들을 에너지 삼아 진정한 어른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꽃 보다 당신(feat. 식물을 키운다는 건)

삶의 지혜는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 삶의 지혜는 불행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 불행 속에서도 건강한 씨앗을 심는 데 있다.
> _류시화《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더숲)

무언가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결심을 하는 시기는 새해만큼이나 봄에도 많이 이뤄진다. 춥던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창문너머로 다가올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곤 한다. 그렇게 저마다의 인생에도 봄이 오길 기다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24절기 중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날은 소만(小滿)이다. 씨뿌리는 날은 망종(芒種)으로 양력으로 6월 5일 또는 6일이다. 봄은 3,4,5월, 여름을 6.7,8월이라고 한다면 망종은 여름인 셈이다. 정말 여름의 문턱에 도달했음을 실감하는 요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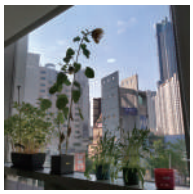
꽃들도 저마다의 개화시기가 다르다. 키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다. 같은 품종의 씨앗이라도 자라는 속도가 다르고, 꽃의 크기도 다르다. 이것을 경험하고서야 알았다. 우리 사람과 똑 같다는 것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화분에 씨앗을 담았다. 가장 먼저 봉선화가 빠르게 새싹을 틔우며 성장했다. 그 속도가 빨라서 일찌감치 분갈이를 했다. 그 분갈이 한 화분 속에 나팔꽃 씨앗이 하나 딸려 들어갔다. 수많은 봉선화 줄기 사이로 잎사귀 모양이 다른 녀석이 덩굴처럼 올라온다. 품종은 다르지만 같이 잘 지내자며 하트모양의 잎사귀를 드러낸다. 그러고는 가장 굵고 싱싱한 봉선화 줄기에 의지해 가장 빠르게 하늘위로 솟구친다. 혼자로 지탱하기 힘든지 창문에 붙어본다. 나는 안쓰러워 지지대를 하나 심어주었다. 균형을 잡은 나팔꽃 줄기는 조금 더 올라간다. 자기가 이곳의 승리자라는 듯 나팔을 분다. 그렇게 나팔꽃이 가장 먼저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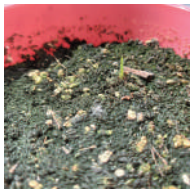
나팔꽃은 하루살이인가 보다. 하루 반짝 아름다움을 세상에 알리더니, 이내 입을 다물고 만다. 자기만 혼자라서 외로운지 그 날 이후로 침묵한다. 옆 작은 화분에 해바라기 씨앗2개가 싹을 틔우더니 무서운 속도로 성장한다. 나팔꽃이 멈춰선 걸 본 모양이다. 빠르게 위로 올라갔다. 그 조그만 화분에서 1미터가 넘게 자라고서야 해바라기 꽃이 가지런한 치아를 드러낸다. 활짝 핀 꽃의 노란색은 어느 컬러보다도 깨끗했다. 다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지 않고 점점 본인 머리의 무게에 못 이겨 아래로 고개를 숙이고 있다. 활짝 핀지 열흘정도가 지나서는 힘든 내색을 하며 나팔꽃을 따라 반경을 좁히고 있다. 고개 숙인 해바라기.

무리를 이루던 봉선화들도 어느새 나팔꽃 높이까지 자랐다. 꽃을 보여줄 듯 밀당을 한다. 토요일 퇴근하기전 흰색 봉우리 하나만 살짝 있었는데, 월요일 출근하고 나니 3색 봉선화가 각기 다른 방향을 보고 활짝 필 준비를 하고 있다. 딱 나팔꽃 높이정도에서 꽃을 틔운 건 우연인지도 모르겠다. 크기와 높이가 작은 아래 봉선화들에게 가장 먼저 자기들 고유의 색을 자랑하고 있다. 마치 자기 쪽으로 오라고 유인하는 거 같다.





그 옆에 미니 화분은 수레국화와 파레붓꽃이다. 앞선 나팔꽃, 해바라기, 봉선화 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심었다. 늦게 출발했다고 그들은 조바심을 보이진 않았다. 내가 조바심을 보였을 뿐이다. 수레국화가 먼저 씨앗을 틔웠고, 위로 옆으로 분수처럼 줄기를 뿜어내고 있다. 수레국화는 15개 정도의 씨앗 중 살아남은 3개의 새싹만이 올곧게 직선으로 하늘을 향해 뻗어가고 있다.





- 다음 페이지에 계속 -

홍보팀장의 '브런치' 서른 일곱 번째 이야기

브런치는 글이 작품이 되는 공간입니다.

소문난 햇볕 맛집이었던 3년 전 3층 사무실에서 당시 사십대 중반을 통과하며 식물은 처음 키워본 이야기다. 물론 집에 몇 개의 화분이 있지만 그건 아내의 몫이었다. 혼자 화분에 씨앗을 심고, 새싹과 꽃을 피우게 하는 과정은 처음이다. 단지 햇볕이 잘 든다는 사무실 환경적 요인만 생각해서 뿌렸던 씨앗이었다. 가끔 물만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쑥쑥 자랄 줄 알았다. 근데 식물을 키워보니 여간 힘들고 신경 쓰이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날엔 주말동안 더위에 지쳐 모든 줄기가 푹 쳐져 있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물을 너무 많이 줘서 화분이 넘치기도 했다. 축 쳐진 잎사귀는 물뿌리개로 손수 하나씩 뿌려주기도 한다. 주말엔 너무 더울까봐 화분을 바닥에 내려놓고 간다. 옆으로 처질까봐 테두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지지대도 세워준다. 정말 사서 고생이다.

이런 정성에 식물은 꽃으로 고마움을 전한다. 보라색 나팔꽃도, 노란색의 해바라기도, 흰색, 분홍색, 빨간색의 봉선화가 아름다운 자연색을 보여줬다. 또한 이들은 내게 단순히 꽃 이상의 즐거움을 가져다 줬다.



첫 번째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다. 많은 글쓰기 책이나, 에세이 저자들이 하는 말이 좋은 글감은 자세히 들여다보기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특히 김훈의 자전거여행은 간결체와 구체적인 묘사의 절정이다. 책 초반에 동백과 매화, 산수유 등을 표현하는데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내 마음은 그의 묘사력인데 내 표현은 부족하기 그지없다. 다시 한 번 위에 꽃에 대한 글을 봐도 엉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나도 글쓰기가 성장하리라 믿기 때문에 굳이 부끄럽지는 않다. 언젠가 자전거여행1,2 필사를 통해 한층 더 성장한 내 글쓰기 실력이 분명 다음에 느껴지리라 믿는다.

두 번째 느낀 건 각기 새싹을 틔우는 시점도, 자라는 속도도, 꽃을 피우는 시기도, 꽃으로 머무는 기간도 다르다는 것이다. 사람과 닮았다. 우리네 삶도 다르지 않다. 어떤 이는 일찍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너무 빨리 떨어지기도 한다. 여러 사람과 함께 성장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의 친구 한명과 함께 자라는 사람도 있다. 옆으로 일탈하는 젊은이도 있고, 앞만 보고 가는 청년도 있다. 누구나 활짝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를 것이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 말고 우직하게 꿈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파종의 시기가 있으면 수확의 시기가 있을 것이니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집착보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하는 게 우리 삶 아닐까 생각을 해본다.

> 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그나마 변함없이 변하는 것은
> 계절뿐이라지만 그것도 실상은 춘하추동의 '반복'이거나
> 기껏 '변화 없는 변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에 이르면
> 우리는 다시 닫힌 듯한 마음이 됩니다.
> _신영복《감옥으로부터의 사색》(돌베개)

늘 반복되는 생활 속에서 계절의 변화는 변함없이 변한다. 그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반복에 불과하지만,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듯이 똑같은 춘하추동은 없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2025년 봄과 여름은 처음이니까. 결국 오늘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서 인생이 될 것이다.

오늘도 수고했어.
어디의 누군지 모르는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월간소식지

발행일 2025년 05월 30일
편집인 홍보팀
발행처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http://www.snh.or.kr